

어린이들을 위한 성경 제공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저자: Edward Hughes

삽화: Jonathan Hay
Alastair Paterson

각색: Mary-Anne S.

번역: Jessica Jiyeon Jung

제작: Bible for Children
www.M1914.org

©2024 Bible for Children, In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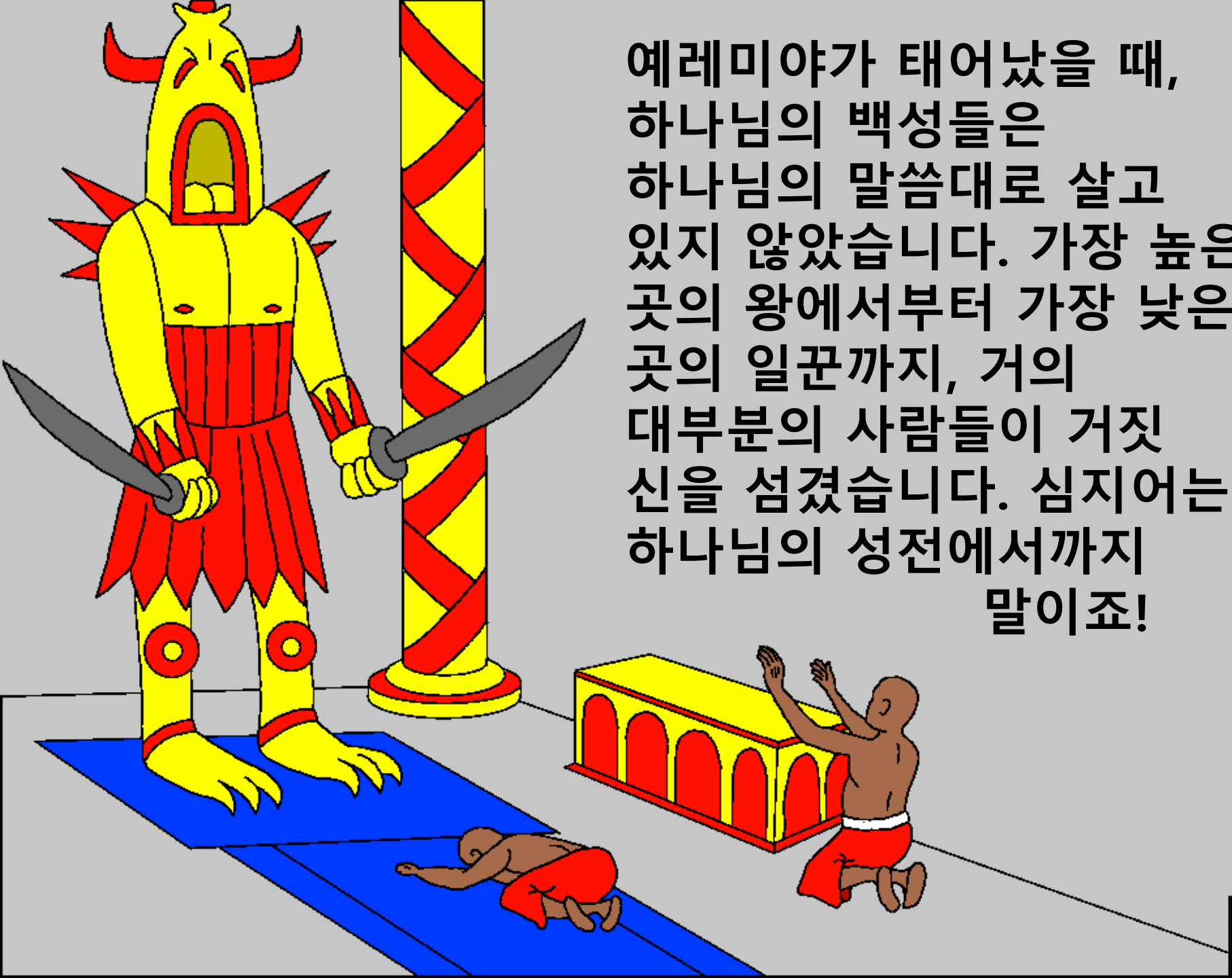
인가: 당신은 이 이야기를 판매하지 않는 한 복사 또는 인쇄할 권리가 있다.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의 신실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힐기야는 제사장이었어요. 예레미야의 가족은 아나돗이라는,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은 마을에 살았습니다. 예레미야의 부모님은 예레미야가 아버지처럼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위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레미야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가장 높은
곳의 왕에서부터 가장 낮은
곳의 일꾼까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짓
신을 섬겼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에서까지
말이죠!



예레미야가
청년이던 시절,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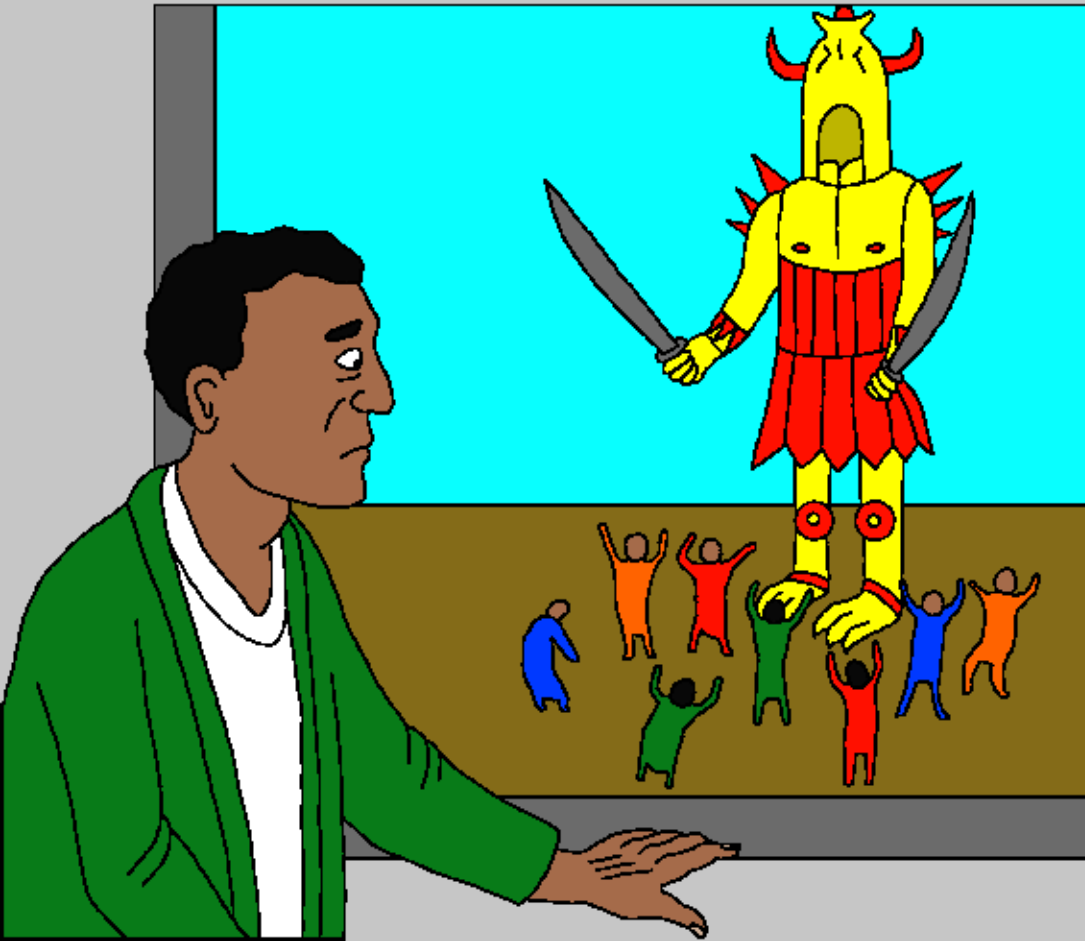
“나는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알았다. 그때부터 나는 너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너는 내 대신 나의 말을 전할 것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레미야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아, 주 하나님!” 그는 소리쳤습니다. “저는 어린
아이와 같아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예레미야는
어린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스무 살 청년이었죠.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그를 둘러싸고 있는 악한 세상에

대항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보내는 곳이
어디든 그 곳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말하라고 하는 것을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를
구해 줄 것이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특별한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입을 만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돕고 싶어 하신다고 담대히 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심지어 왕 조차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조차 화가 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만 하라고 말했습니다. 예레미야가 거짓말을 한다고 모함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죠.



예레미야는 약 백 년 전,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 왕국이 하나님을 버리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사람들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적이었던 아시리아인들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먼 곳으로 이주시켜버렸습니다.





이제 남쪽 왕국인 유다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적군은 이미
쳐들어오고 있었어요!
과연 하나님은 또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정복당하고 추방되는
것을 내버려두실까요?



사람들은 그들의 우상을 믿었습니다. 우상들이
그들을 적으로부터 구해줄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레미야에게 너무나도
화가 나서 그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종을 보호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충격에 빠트릴 만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지 말아라. 그들이 나에게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어도 듣지 않을 것이다."



예레미야는 왕에게 바빌론
군대와와의 전쟁에서 패배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분노한 왕은 예레미야를
감옥에 처넣었습니다.
하지만 감옥에서도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후,
예레미야는 다시
왕과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전하며 그분을
믿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왕이 예레미야를
깊은 진흙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왕은 몰래 예레미야를 구해내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왕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물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포로로 잡혀 가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바빌론 군대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를
정복했습니다. 그들은 성벽과 모든
건물을 부수고 모든 것을
불태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앞으로 70년 간 포로생활을
하게 될 것이며, 그
후에 그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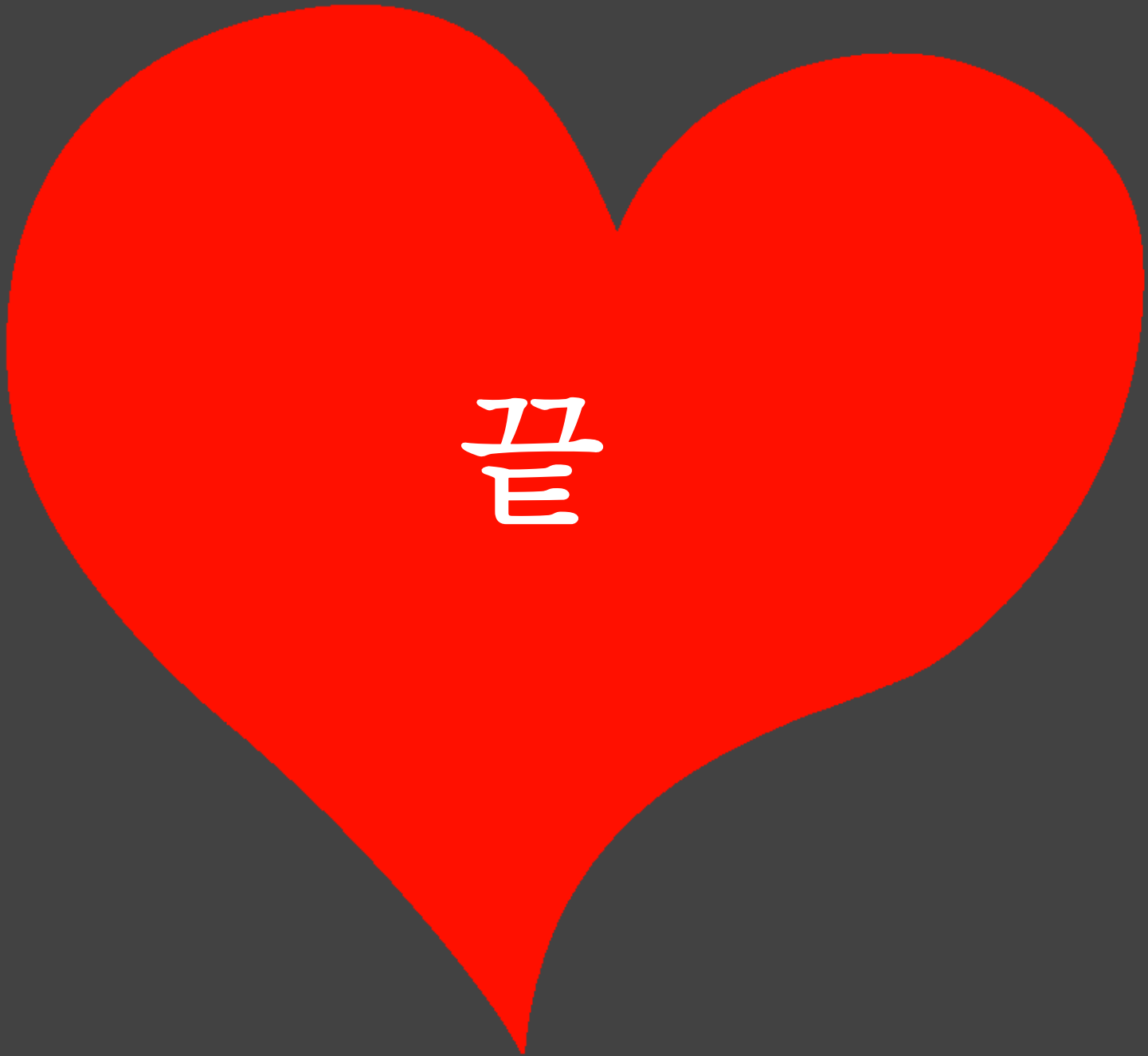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취어
깨닫게 하나이다.” 시편 119:130





성경 이야기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 주고 싶어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에 대해 말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라고 불리는 나쁜 짓들을 해 온것을 알고 계십니다. 죄에 대한 처벌은 죽음이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당신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죄값을 치뤄 주셨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천국으로 가셨지요. 예수님을 믿고 싶으면 당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 분께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당장 오셔서 동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과 영원히 함께해 주신답니다.



당신이 이 진실을 믿으신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세요. 사랑하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인
것과 인간으로 오셔서 제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제 삶을 주관하시고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아멘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매일 대화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